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mailto: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경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mailto: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gmail.com](mailto:stfrancisk@gmail.com)

[제1독서] ..... 사도 10,34-37-43

[화답송] ..... 시편 118(117), 1-2,16-17,22-23(©24)



(후렴)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 세.

- 주님은 좋은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제2독서] ..... 콜로3,1-4 (또는 1코린 5,6-8)

[복음환호송] ..... 1 코린 5,7,8.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는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성가안내]

- 입당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 봉헌성가 [130] 예수 부활하셨네
- 성체성가 [168] 오묘하온 성체
- 파견성가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 2 독서후 바칩니다

###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4월 4일	이영노 율리안나	박기목 알버트	조규진 아네스	이영노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4월 11일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김애희 테클라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양미숙 마리아

[ 2021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기본권**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서도, 기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자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춘운 베드로 한정수 비오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김양수 요셉, 광 사비나	김중화 필립보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린다 김 한 안나 양미숙 마리아 김승한 어거스틴
생미사	봉헌자
이종철 신부, 이수철 신부 형제 남기걸, 남지현 부부 김경련 울릿다 이병국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임금종 마가렛 이정진 안토니오 김승한 어거스틴, 노희정 데레사, 김태희 레아 박연옥 엘리사벳, 김옥지 아가다 민사현 베드로 (영육 건강) 이루리 모니카 (영육 건강) 전마지 마가렛, 김옥지 아가다, 정창동 폴리나 조셉 아리마테아와 가족 가데니야 가스맨	김경련 울릿다 김경련 울릿다 김지영 유스티나 이지훈 아네스 양미숙 마리아 익명 이영애 레지나가족 김승한 어거스틴 김승한 어거스틴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김경련 울릿다 김경련 울릿다 김경련 울릿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이재오(클레멘트)   |
| 김동희(헬레나)     | 이종환(T.아퀴나스) |
| 이정주(소화데레사)   | 김용기(요셉)     |
| 정창동(폴리나)     | 고종호(마태오)    |
| 지군자(스테파니)    | 홍봉운(바오로)    |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
| 정영도          | 노의선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 ‘부활의 의미’ - 서울 대교구 주보에서 ]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 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삶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대략 서기 30년쯤이라고 하고, 올해는 2021년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계산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슬하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을 대략 20년 정도로 계산하고, 세상에 살던 몸의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여든살(80살) 정도로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내 의지로 사는 기간은 60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의지로 사는 기간을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2000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온 기간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앞에 다가가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선물이나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전하는 요한 복음사가의 내용은 ‘스피디한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에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맞춰,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시신이 서둘러 무덤에 안장되고 난 다음, 멀리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을 막달라 지방 출신의 여자,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예상외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서 본 것은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이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일에 놀란 여인이 동분서주하면서 알린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의 설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지만, 그렇게만 부활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해석하는 의미로는 한참 부족한 사전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활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세상에 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우길만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대축일 미사에 함께 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알아듣는 분들입니까? 역시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삶에서 알아듣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삶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여긴다면 그에 알맞은 삶의 결과를 얻으려고 애쓸 것이고, 이 부활이라는 낱말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세상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알맞은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눈앞에 보여야 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에서도 부활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신 도난 사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인정되었던 베드로 사도가, 훗날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정답을 말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를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존재들이고, 그 능력은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부활의 힘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물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한 자리에 모여서 당신의 부활을 경축하는 저희에게 그 기쁨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아멘.”**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주님 부활 대축일 성경 묵상**

(사도 10,34-37-43/골로 3,1-4/요한 20,1-9)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힘을 새롭게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평화와 생명을 얻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것보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는 우울해도 눈앞에 보이는 자연은 생명이 넘칩니다.

어떻게 생명이 넘칠 수 있습니까?

나무는 봄, 여름, 가을의 아름답던 추억을 다 떨어뜨리고

완전히 마른 가지가 되어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실의 아픔이 바로 죽음의 고통이 아닙니까?

부활은 겨울을 맞는 나무처럼 소중했던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욕심마저

비우는 끊임없는 탈출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평화와 생명이 넘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또한, 부활을 체험했다면 이웃에게 주님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나의 부활 체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거울에 반사되듯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빛나고, 그 빛이 퍼질 때 빛이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 또한 그 빛에 참여하며,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게 합니다. 그것은 파스카 전례 때 부활의 빛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초들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마치 초 하나가 다른 초에서 그 불을 옮겨 받듯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신앙의 빛 37항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